

창진원, 싱가포르에 스타트업 26곳 진출 지원

창업진흥원이 싱가포르 기술·혁신 주간(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스위치)에 'K-혁신기업 통합관'을 조성, 스타트업 26개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2일 창진원에 따르면 '스위치'는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약 100개국에서 2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30개 이상의 국가관(글로벌 파빌리온)이 선보였다. /창진원



한국앤컴퍼니그룹, 시민에 판교 본사 공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 시민 25명을 대상으로 건축 투어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완공된 테크노플렉스는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립한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협업해 조성했다. 지하 6층~지상 10층, 연면적 4만7919㎡ 규모로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본사 역할을 한다. /한국앤컴퍼니그룹



매일유업, '韓시니어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열어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 대한골프협회가 3일부터 6일까지 전북 고창군 고창컨트리클럽에서 '매일 셀렉스배 제31회 한국시니어오픈 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만 50세 이상 국내외 프로·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하는 시니어 골프대회다. 총상금은 국내 시니어 대회 최대 규모인 3억원으로 책정됐다. /매일유업



이화의료원, '보구녀관 139주년 기념식' 열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10월 30일 이대서울병원 이영주홀에서 '보구녀관 13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구녀관은 고종 황제가 '여성을 널리 구하는 곳'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이화의료원의 전신이다. 특히 당대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 여성 의학 교육의 첫 싹을 틔운 이곳은 병원이자 평등과 자활의 거점이었다. /이화의료원

이노비즈협회
글로벌 강소기업 키운다

이노비즈협회가 우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돕는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참여사를 모집한다.

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기술 분야인 '3대 메가(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및 '7대 시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산업군을 영위하는 이노비즈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발 규모는 총 50개사 안팎이다. /김승호 기자

김동선, 프레데릭 아르노와 갤러리아 아이스크림 회동

〈한화M&S 사장〉 〈로로피아나 CEO〉

강남구 갤러리아百 명품관서
새 단장한 로로피아나 매장과
협업한 크리스마스 트리 찾아
한화 계열 분리 중 만남 '주목'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M&S) 미래전략총괄 사장과 프레데릭 아르노 로로피아나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만나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유통 현안을 논의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과 아르노 CEO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을 방문해 최근 새 단장한 로로피아나 매장과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둘러봤다.

이후 두 사람은 갤러리아 명품관 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 매장을 찾아 아이스크림을 시식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들의 모습이 방문객들에게 포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기도 했다.

벤슨은 김 사장이 주도해 론칭한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다. 이번 만남은 한화그룹의 지주사 설립과 인적분할을 통한 계열 분리 추진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아르노 CEO는 세계 최대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태그호이어 대표와 LVMH 시계 부문 총괄 CEO를 거쳐 지난 3월부터 로로피아나를 이끌고 있다. 로로피아나는 이탈리아의 캐시미어 기반 럭셔리 브랜드로 2013년 LVMH그룹에 편입됐다.



김동선 한화M&S 사장과 프레데릭 아르노 로로피아나 CEO. /독자제공

갤러리아백화점은 올해 로로피아나와 협업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명품관 이스트 광장에 잎을 엮어 제작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금빛 조명을 설치했으며, 건물 외벽에는 로로피아나 로고와 별 장식을 적용했다. 해당 장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갤러리아는 2016년 불가리를 시작으로 까르띠에, 샤넬, 루이비통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크리스마스 협업을 이어왔다. 올해로 11년째 명품 브랜드와 연말 장식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아르노 CEO는 지난해에도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백화점 4사 대표들과 만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도 방한해 주요 매장을 점검했다. 아르노 CEO는 이번 방한 기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본점의 LVMH 주요 브랜드 매장도 둘러봤으나 신세계백화점 경영진과 별도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전자, 아프리카 첫 올림픽 후원

'다카르 청소년올림픽' IOC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 참여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올림픽에서 청소년 선수들의 메달 획득 순간을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기록한다.

삼성전자는 세네갈에서 열리는 '2026 다카르 청소년올림픽'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빅토리 셀피(Victory Selfie)'가 청소년올림픽 최초로 도입된다. 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직접 셀카를 찍으며 동료 선수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경기 중계에도 활용된다. 스케이트보딩과 태권도 경기에서는 갤럭시 S26 울트라가 방송 카메라와 함께 촬영에 투입돼 경기 현장을 전 세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수촌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교류하고 갤럭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삼성 오픈 스테이션(Samsung Open Station)'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갤럭시 인공지능(AI)으로 올림픽 테마 사진을 제작하는 '빅토리 월'과 대회 경험과 포부를 짧은 영상으로 남기는 '빅토리 토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10월 31일(현지시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2026 다카르 청소년올림픽 개막식에서 그리스 선수단이 국가명이 표시된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와 함께 메달 시상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빅토리 포토 존'을 마련하고 갤럭시 기능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멘토링 프로그램 '메달을 넘어(BEYOND THE MEDAL)'를 통해 IOC가 선정한 롤모델 선수들이 청소년 선수들에게 성장과 진로에 관한 조언을 전한다.

삼성전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 후원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개막한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은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첫 올림픽으로, 25개 종목에 청소년 선수 약 2700명이 참가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 N 페스티벌' 성료… 7만명 방문

현대차, 2026 시즌 마무리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싱 대회인 '현대 N 페스티벌' 2026 시즌을 마무리하며 고성능 브랜드 N의 고객 접점 확대와 모터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최종 6라운드를 끝으로 현대 N 페스티벌 2026 시즌을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누적 7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다양한 레이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동일 차종으로 경주해 드라이버의 실력을 겨루는 원메이크 레이스다. 올해는 아이오닉 5N eN1 컵 카가 참가하는 최상위 '그란 투리스모 eN1'을 비롯해 아반떼 N1·N2 컵 카 기반의 금호 N1, 넥센 N2, 넥센 N3 등 4개 클래스로 운영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N3 클래스는 레이싱 입문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저변 확대를 도모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 N 페스티벌 2026 시즌 최종전에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들이 경주하는 모습. /현대차

서울 수능 응시생 11만3454명… 0.6%↓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 요원 배치

올해 서울 지역 수능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운데, 재학생은 줄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9일 관내 시험장 228곳에서 수능을 치르며,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 요원을 배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현황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 수능 지원자는 11만3454명으로 지난해(11만4158명)보다 0.6% 감소했다. 재학생은 5만9625명으로 3658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4만9438명으로 2759명 늘었다. 검정고시 등 출신 지원자도 4391명으로 전년보다 195명 증가했다. 전체 지원자 중 재학생 비중은 52.5%, 졸업생 비중은 43.5%다.

올해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장 학교에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 요원을 배치하고, 사전 연수를 통해 기기의 특징과 적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기보,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기술보증기금이 고객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다.

기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 또는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보는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 기관으로,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기업 대표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실적은 개선 전 월 3000건 수준에서 개선 후 월 3만여 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도 활성화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 사 ◆HD현대 ◇부사장 승진 △HD한국조선해양 이상혁 △HD한국조선해양 임대준 △HD현대중공업 설귀훈 △HD현대중공업 이철헌 △HD건설기계 임형택 △HD현대오일뱅크 조진현 △HD현대일렉트릭 양재철

부 음 ▲김제태씨(13대 국회의원〈논산, 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 별세, 손중구씨 남편상, 김은정·김계정·김선경·김미수·김영수씨 부친상, 이종태·박정호씨 장인상 = 1일 오전 4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20분, 장지 논산 선영. 02-2258-5969

▲강문자씨 별세, 이란혜(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씨 시모상=1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VIP1호,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55-233-5131